

[바둑]

李-朴 투톱... '농심배' 믿는다

<창호> <영훈>



<이창호 9단>



<박영훈 9단>

한국과 중국의 기싸움이 연초부터 바둑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중국은 한-중 양강의 패권대결로 압축됐던 제11회 삼성화재배에서 마수걸이 우승을 차지했다. 대국결과는 한국에게 참담했다. '대표선수' 이창호가 중국의 장수에게 단 한판도 따내지 못하며 무릎을 꿇은 것이다. 이제 한국이 '명군'을 부를 차례. 무대는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제8회 농심배 최종 라운드다.

李 "두번 실패는 없다... 삼성화재배 패배 설욕할 터"
朴 "스타탄생 보라" 2라운드 침몰 직전 한국호 구해

6일부터 농심배 최종라운드

2라운드를 마감한 결과 한국은 이창호, 박영훈이 남아있고, 중국은 구리와 쑹제, 일본은 요다 노리모토가 대기 중이다. 최종라운드 1차전에 출전하는 박영훈이 요다를 꺾을 경우 그야말로 한-중대결로 접어들다. 이창호·박영훈 투톱은 단체전에서 유독 강한 기사들이어서 팬들의 기대를 부풀리고 있다. 박영훈은 2라운드에서 위기의 한국호를 살려낸 영웅. 그는 지난해 이 대회에서 3연승을

거둬오며 '스타탄생'을 예약하고 있다. 그는 당시 조훈현, 최철한 원정진이 풀쭉이 나가떨어진 최악의 상황에서 파죽의 5연승을 달린단 평판을 쥐고 3연승으로 승부의 물줄기를 돌려세웠다. 이 같은 상승세가 3라운드에서 까지 이어질 경우 박영훈은 이창호를 벤치에서 쉬게하고 6연승의 금자탑을 세우며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다. 현재까지 이 대회 최다연승기록은 이창호와

중국의 후아오위, 쑹첸이 수립한 5연승이다. 박영훈의 단체전에서의 활약은 이번 만이 아니다. 지난 2003년 제4회 농심배 때는 산봉장으로 출전해 파죽의 4연승으로 한국우승의 방랑타 역할을 해냈다. 문제는 박영훈의 상대전적. 현재 구리에게 2승3패, 쑹제에게 2패로 열세라는 점이다. 박영훈이 무너질 경우 이창호가 총대를 맨다. 그는 삼성화재배에서 불의의 일격을 당했

지만 아직까지 유효한 '승리의 보증을수표'다. 이창호는 농심배 원년부터 6회 대회까지 주장을 맡아 14전 전승을 일궈내는 등 자타가 공인하는 '단체전 체질'이다. 팬들은 이창호가 이번 대회에서 국제대회 22개월 무관의 설움을 잊고 부진에서 벗어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창호에게는 일본의 요다노리모토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는 역대 전적에서 8승10패로 요다에게 다소 밀리고 있다. 구리에게는 3승 2패로 앞서고 있지만 쑹제에겐 1승 2패로 뒤지고 있는 것도 무시못할 변수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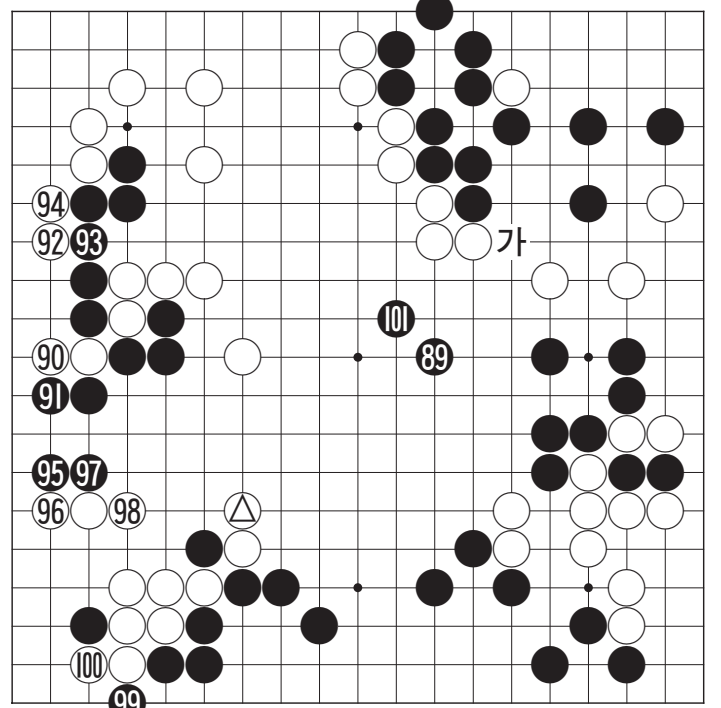
제1회 천하의 요소

광주시 교육청이 어린이 바둑대회 초등 최강부 결승전

白 박은찬 (수문초 5)

7보(89~101)

黑 강지수 (주월초 6)



귀는 그 특수성 때문에 변화가 막측하고 기묘한 함정이 즐비하다. 한 수만 빠듯해도 대형사고가 나기 십하다. 그런데도 두 어린이는 내공이 특실한지 막힘없이 손길이 나가고 있다. 백 89로 들어온 수는 정수이 수를 두지 않으면 '참고도1'의 흑 1로

SK Telecom KRA 한국마사회

'영원한 국수' 김인 전집 출간

첫 대국 등 312국 기보 수록



원로 기사 김인(64) 9단의 명국을 담은 '영원한 국수 김인 전집'이 출간됐다. 강진 태생인 김인 9단은 한국바둑의 개척자 조남철 9단의 뒤를 이어 1960년대부터 70년대 중반까지 10여년간 1인자 자리를 지킨 바둑계의 거목. 국수전 6회 우승 등 생애 총산 30회 우승과 준우승 22회의 기록을 남겼다. 3권으로 구성된 이번 전집은 1959년 최초의 공식대국부터 마지막 타이틀전인



1987년 바카스배 결승전까지 김 9단의 바둑 인생이 담긴 312국의 기보를 수록했다. 명인의 전집답게 모든 제작 공정을 수탁업으로 마감해 고급스러움을 더했으며 종이는 전통의 한지를, 표지는 실크로 제작해 소장가치를 높였다. 총 300세트 한정판으로 발매됐고 각 세트마다 고유번호가 매겨져 있다. /연남스

이세돌 "바둑 제왕은 바로 나" 박정상

■맥심커피배 입선최강전

8일 판에서 결승 2국 격돌

'이세돌의 3연패나, 박정상의 처녀등정이나' 이세돌과 박정상이 제8회 맥심커피배 입선최강전 패권을 놓고 건곤일척의 승부를 벌이고 있다. 먼저 일격을 당한 쪽은 이 대회 3연패를 노리는 이세돌 9단. 이 9단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승 3번기 1국에서 박정상 9단에 271수 만에 백 불계했다. 결승 2국은 8일 판에서 열린다. 박정상은 지난해 4연패를 포함한 역대전적에서 통산 7연패를 당하는 등 9단의 '밥'이나 다를 없는 기사였다. 그러나 이날 만은 '고개숙인 남자'가 아니었다. 이 때문에 입선의 반열에 든 뒤 맥심배에 첫



<이세돌 9단>



<박정상 9단>

출전한 박 9단의 행보가 주목을 끌고 있다. 스스로 자신의 적수는 이창호 9단 뿐이라고 생각하는 이세돌은 전기 대회 최절친이 이어 다시 한 번 야기는 후배 박정상을 도전자로 맞았다. 지난해 국내 기전을 석권한 이세돌은 세계 복두 도요타렌소배를 거머쥐는 등 현재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영화안내 MegaBox: Happy Time, 영화인내, Megabox Day

엔터시네마: 최강로맨스, 허브, 마파도2

엔터시네마: 최강로맨스, 허브, 마파도2

엔터시네마: 최강로맨스, 허브, 마파도2

컬럼버스시네마: 최강로맨스, 허브, 마파도2

컬럼버스시네마: 최강로맨스, 허브, 마파도2

대인부동산컨설팅: 상담, 입주, 환진, 레스타캐, 고인전집

금보부동산컨설팅: 신평매매, 신원택지, 건물매매, 주유소매매

인애공인중개사: 헛집건물매매, 헛집임대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26억 대지 180연건평 840, 26억 대지 180연건평 840

현대공인중개사: 급매물 상담 후 10일내 책임 중개, 급히 구합니다

(주)옥션코리아 법원경매: 아파트, 숙박시설, 주택+대지, 근린상가, 근린주택, 다가구(원룸), 근린시설, 기 타